

“주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양이로다”
파키스탄 대통령, 이슬라마바드서 아동결혼 금지법 서명



파키스탄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이 지난 29일, 아동결혼 금지법에 서명하면서,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에서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명시하는 법이 공식 발효됐다고 모닝스타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아동 결혼 억제 법안 2025’는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 발효됐다.

법안은 18세 미만과의 혼인생활을 ‘법적 강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낙태(이슬람 결혼) 주례자가 법을 어길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파키스탄 루피(약 49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 남성이 미성년 소녀와 결혼할 경우 최대 3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셰리 레흐만 상원의원(파키스탄 인민당, PPP)에 의해 발의됐으며, 5월 16일 하원을, 5월 19일 상원을 통과했다. 레흐만 의원은 “이 법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실이며, 파키스탄의 개혁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자르다리 대통령이 이슬람주의 세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서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법안의 핵심 조항에는 결혼 당사자 모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신분증(CNIC)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위반 시 주례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진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CII)와 이슬람주의 정당 자마아트 울레마-에-이슬람-파즐(JUI-F)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는 법안을 지지하며 이 법안이 파키스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면 “아동 보호를 종교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슬람 원칙에 대한 매우 왜곡된 해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인권운동가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기독 인권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는 “이 법안은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에만 국한되지만, 기독 소녀들이 강제로 개종당하고 납치 결혼을 당하는 일이 잦은 편자브 주에서도 유사 법안의 통과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편자브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현재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곧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편자브 주에서는 여성의 결혼 최저 연령이 16세이며, 기독교인은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더 어린 나이에도 결혼이 가능하다. 10세도 채 안 된 소녀들이 납치되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당하고, 이슬람 결혼이라는 명분 아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원은 피해자 나이를 입증하는 문서를 무시하고, 유괴범에게 피해 소녀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 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3-4)

하나님, 이슬람의 율법으로 조흔을 정당화하여 아동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파키스탄에서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정으로 새로운 아동 결혼 금지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의 굴레로 탐심을 채우는 악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 법안이 승인되어 강제 결혼과 성폭력에 시달리는 소녀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나타내소서. 진리와 공의의 빛이 희귀한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담대히 선포하여 무지한 백성들이 주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남아공 홍수 사망 57명으로 늘어…민가 3천 채 피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망자가 57명으로 늘어났다고 AF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공 협치전통부의 벨렌코시니 휠라비사 장관은 홍수 피해지역인 남동부 이스턴케이프주(州)를 찾아 총 5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도 웰타타에서 학교 통학버스에 탔던 어린이들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주정부는 전했다. 전날 집계는 49명이었다. 남아공적십자사는 민가 3천 채 이상이 침수 피해를 봤고 물이 빠지면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이스턴케이프 지역에 폭우가 내린 뒤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졌다. 남반구에 있는 남아공에 영하의 겨울 추위까지 겹치며 피해가 커졌다. 현지 구호단체 관계자는 “지난 24시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오는 13일 피해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시편 119:169-170)

하나님, 남아공에 내린 홍수로 주요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을뿐 아니라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다급한 상황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실종자들과 영하의 겨울 추위까지 겹쳐 구조가 시급한 이들을 속히 건져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를 베푸사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여 생존을 위한 이들의 외침이 주를 향한 간구로 변하여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 되게 하시며 주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주 여호와를 찬송케 하옵소서.

▲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잇단 청소년 흉기 사건에 강경 대응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이은 청소년 흉기 사건의 원인으로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프랑스2 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흉기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날 프랑스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살해 사건을 언급했다. 이날 프랑스 동부 노장(Nogent)의 한 중학교 앞에서는 14세 학생이 가방 검사 도중 교육보조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SNS가 어린이·청소년의 폭력성에 영향을 준다며, 유럽연합(EU)이 나서지 않으면 프랑스가 먼저 SNS 사용 금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의 SNS 금지는 성인물 사이트 접속 시 연령 확인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 가능하며,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즉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1명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최근 몇 달간 청소년 흉기 범죄가 잇따랐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베드로전서 3:12)

하나님, SNS의 영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흉기 사용이 유행처럼 번져 사람을 해하는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프랑스를 돌봐 주소서.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대와 어린 심령들의 죄된 본성을 부추기는 사탄을 꾸짖어 주시고, 죄에 대하여 매일 진노하시는 주의 엄하신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소서. 의인의 간구가 필요한 이때 프랑스 교회가 더욱 복음과 기도의 결론을 붙들고 영혼 구원의 부르심에 충성케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스라엘, 이란 무기고·우라늄 농축 시설 파괴…이란은 보복공습**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이란 공습을 통해 탄도 미사일 무기고 상당수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는 (이란의) 최고 군사 지휘관, 고위 핵 과학자, 이슬람 정권의 가장 중요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다수의 탄도 미사일 무기고를 파괴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란) 정권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들은 이보다 악해진 적이 없다”며 이란 국민을 향해 “악랄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습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군(IDF)은 이란의 하마단·타브리즈 공군 기지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대공 방어 체계에 속한 수십 개의 목표물도 파괴했다며 “필요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넘어 핵무기화 단계로 나아갈 징후가 보여 이란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 제거 명령이 지난해 11월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의 암살 직후 내려졌다”며 나스랄라 축출로 대리 세력 측이 와해하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서두를 것이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자국의 핵시설을 공습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틀째 보복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13일(현지시간)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도 14일 새벽에 자국에 이뤄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확인했다. 미사일은 테헤란과 이란 서부 케르만샤에서 발사됐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텔아비브 등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란이 먼저 발사한 미사일은 두 차례에 걸쳐 100기에 못 미치는 규모로 대부분 요격됐다. 다만 요격에 따른 파편으로 일부 건물이 손상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텔아비브와 주변 지역에서 최소 40명의 부상자가 집계됐다. 대부분의 부상자는 경미하게 다쳤지만,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브리서 12:14)

하나님, 오랜 갈등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 보복에 대한 보복을 강행하여 팽팽한 긴장으로 위태한 상황에 놓인 양국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이런 충돌이 더 큰 참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속히 분쟁을 멈춰주옵소서. 또한 자신들이 가진 무기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결국 모두를 황폐하게 하는 것뿐임을 양국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분쟁이 있는 곳에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구원의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오스트리아 고교서 총기 난사…최소 10명 사망

1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BBC가 보도했다. 엘케 카어 그라츠 시장은 “사망자 중에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이번 사건을 “끔찍한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총격범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총격범이 과거 이 학교에 재학했던 22세 남성으로, 권총과 산탄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학교 회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그라츠의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국가적 비극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며 “고통과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학교는 젊음, 희망, 미래의 상징”이라며 “학교가 죽음과 폭력의 장소가 될 때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적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과거에도 총기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20년 수도 빈 도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했다. 1997년 11월에는 마우터른도르프에서 36세 정비공이 6명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린도후서 1:4)

하나님,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백성들을 주께 익탁드립니다. 자신을 내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을 이 시간을 통해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소망으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복음이 오스트리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더욱 선포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올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 페루, 가톨릭 쇠퇴 속 복음주의 급성장

페루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복음주의 교인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반젤리칼포커스가 최근 보도했다. 페루연구소(IEP)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 신자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0.2%로, 2024년 11월의 63.5%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같은 기간 8.4%에서 11.3%로 증가했다. 1996년에는 단 4.4%였던 복음주의 비율이 30여 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복음주의 신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인 밀라그로스 하우레기 데 아과요와 알레한드로 무냥테는 생명과 가정 보호, 아동과 원주민 정책, 공공보건, 고아원, 입양, 위탁아동의 재통합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의 감소의 원인으로 연이은 스캔들과 제도적 불신이 지목되고 있다. 2025년 4월, 바티칸은 수십 년간 학대 의혹이 제기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를 해산했다. 이 단체는 리마 상류층을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학대 의혹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특히 2025년 초, 전 리마 대주교 시프리아니가 198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고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골로새서 1:23)

하나님, 페루에서 복음주의자들의 급성장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도 커져 성경적 가치관 위에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더욱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우사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연이은 스캔들과 제도적 문제로 인한 충격과 실망감에 가톨릭에서 돌아선 이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불신이 참된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변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 나아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객기 추락사고 사망자 최소 265명…영국인 1명 기적 생존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로 최소 265명이 숨지고 한 명이 생존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40여 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AI171편 여객기는 12일 오후 1시 38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 국제공항을 떠난 5분 만에 주거 지역에 추락했다.

여객기가 추락한 뒤 남성이 흰색 티셔츠에 피가 묻은 상태로 구급차 쪽으로 걸어갔다. 다리를 절뚝거린 그는 “비행기 안에서 나왔다”고 목격자는 말했다. 이 유일한 생존자는 영국인 비쉬와시 쿠마르 라메시(38)로 확인됐다. 그를 치료한 인도 현지 의사는 “현재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메다바드 경찰은 여객기 추락 사고로 260명 넘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탑승자 외에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 주민들이 포함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승무원 12명 등 모두 24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사망자 수는 241명이라고 에어인디아는 발표했다. 사망자 중에는 비자이 루파니 구자라트주 전 주총리도 포함됐다.

승객 국적은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라고 회사는 전했다. 탑승객은 성인 217명, 아동 11명, 유아 2명이었다. 인도 CNN뉴스18은 여객기가 국립 BJ 의대 기숙사 위로 추락해 의대생이 다수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반면 의사협회는 의대생 1명 사망, 최소 7명이 실종됐으며 약 5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인도 민간항공국(DGCA)은 사고기가 이륙 직후 메이데이(비상선언)를 보내고 곧바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기록에 따르면 사고기는 이륙 후 1분이 지나지 않아 교신이 끊겼다. 사고 정황으로 볼 때 항공기가 추진력이나 동력이 부족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면 극히 드문 양쪽 엔진의 동시 고장 가능성이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또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명 베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사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기는 장거리 비행을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였다. 추락 현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146:3-5)

하나님,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사고를 당해 수백 명이 사망해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인도를 익탁드립니다. 참변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진짜 의지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인도 영혼들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얻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LA 반 ICE 시위 폭력 사태로 확산…트럼프, 국가방위군 투입 지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 반대 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되며 수십 명이 체포됐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이 LA 시내 곳곳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이며 4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이 시위의 촉발 원인이 되었다. 시위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구호로 시작됐지만, 곧 과격한 양상으로 변질됐다.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차를 공격했으며, 공공기물 파손과 함께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멕시코 국기를 흔드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경찰을 향해 벽돌과 병을 던지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회복을 위해 국가방위군을 긴급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무법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LA경찰은 현장에서 최소 50명을 체포했으며, 일부는 폭력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보수 진영은 이를 “무정부 상태”라며 민주당 주지사와 시장의 무능을 비판했고, 반면 시위대는 “이민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진압에 반발하고 있어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디모데전서 2:8,10)

하나님, LA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단속에 체포된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정부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립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분노와 다툼을 멈춰 주시고 몸 된 교회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선행이 미국 사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하옵소서.

▲ 벨기에 브뤼셀, 성전환 반대 피켓 시위 기독 여성 체포

스코틀랜드 출신 기독교 여성 로이스 맥클래치 밀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아이들은 결코 잘못된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성전환 반대 문구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 빌보드 크리스와 함께 체포돼 수 시간 구금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들은 기소 없이 석방됐으나, 경찰은 그들의 피켓을 압수해 파기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빌보드 크리스는 이번 체포를 “완전한 광기”라고 규탄했으며, 밀러는 이번 사건이 유럽의 표현의 자유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녀는 “이곳은 유럽연합의 수도이며, 민주주의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장소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 대화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이곳에서조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러는 미국 부통령 제이디 밴스가 최근 뮌헨에서 한 연설에서 표현의 자유 위기를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그 경고가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보수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대(ADF)의 폴 콜먼 이사는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고 있던 이들에게 국가의 권력으로 대항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어다(베드로전서 1:13)

하나님, 성전환 반대 문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된 기독교인의 소식을 통해 진리에 반하는 가치와 사상이 공권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들이 벨기에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들려오는 상황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교회가 더욱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뒤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게 하소서.